

<2020년 2월 5일 수요말씀>

스스로 조심하라

본 문 누가복음 21장 32~36절

* 수요설교 해당 교역자에게

선생 씨 준 말씀이 끝난 후에

교역자들이 쓴 원고를 10분 동안 전해줘라.

성령님이 교역자들에게 간증을 잘 준비해서 전하라고 하셨다.

성령님도 주도 예배 때 교역자들의 실력을 보신다고

은혜와 진리로 간증도 하면서 전하라고 하신다.

◎ 금주에는 “스스로 조심하라” 는

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줬습니다.

<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>에 대해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.

하나님이 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지,

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지,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조심하라는 말씀인지,

인생 삶 속의 다른 문제들도 조심하라는 말씀인지,

제대로 알고,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.

◎ <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>이 너무도 많습니다.

이번에 ‘조심하라’ 는 말씀을 듣고

<신종 코로나바이러스>를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고
의식하며 조심했을 것입니다.

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
그와 같이 <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조심할 것>이 무엇인지
절실히 깨닫고 행하는 ‘최고의 기회’가 되어야 됩니다.

그래야 개인과 민족과 세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

◎ 개인도 민족도 섭리사도 세계의 모든 자들도

<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>을
지난 주일에도 화요일 새벽에도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.

이 시간에도 설교자가 ‘주의 입’을 대신하여 전해주니,
말씀을 생명시하며 잘 듣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1. <스스로 조심하라>는 말씀은, 하나님이 해당되는 자를 심판하셔도 ‘조심하면,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’는 말씀이다.
2. 스스로 조심하면, 개인도 민족도 <심판의 기간>이 보다 일찍 끝나게 된다.
3. <스스로 조심하는 것>에는 ‘한계’가 있다.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때도 아무리 조심해도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. 왜? ‘기술’이 없이 때문이다. 그러나 ‘외줄을 타며 기술을 배운 자’는 외나

무다리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.

4. 스스로 조심하려면, 그에 해당되는 <기술>을 배워야 된다.
5. <성령님>께 물어보고 배워야 된다. 기도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대로 배워야 된다. 또 ‘사람들’ 에게도 배우고, ‘책’으로도 배우고, ‘전문가’ 에게도 배워야 된다.
6. <주>께 배우면, 쉽고 가볍게 잘 가르쳐 주신다.
7. 제대로 배우려면, ‘전적으로’ 배워야 된다.
8. <산악 암벽을 타는 자>라도 ‘기술’ 이 없으면, 조심해도 바로 떨어지고 만다.
9. <어떤 자>는 20~30년 동안 암벽을 타서 건강한데도 자기 집 계단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죽었다. ‘계단을 걷는 기술’ 이 부족했기 때문이고, ‘조심’ 을 잊고 걸었기 때문이다.
10. <기술이 없고, 실력이 없는 자>는 평지를 걷다가도 넘어져서 다치고, 고생을 한다.
11. 지난날 사연들을 생각해 보아라.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고, ‘그 일에 해당되는 유능한 기술’ 과 ‘아는 지식’ 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고, 손해를 봤다.

12. 스스로 조심하려면 <기술>이 있어야 되고, <힘>도 있어야 되고, <건강>해야 되고, <노력>해야 되고, <기도>해야 되고, <하나님의 말씀>을 받아 ‘신’이 되어야 된다.
13. <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>은 ‘저마다 해당되는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여 섭리역사를 펴나가라는 말씀’이다.
14. 귀 있는 자는 <성령>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.
15. <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>은 ‘생명의 말씀’이다. 정말로 귀하게 듣고 실천해야 된다.
16. 지난날에도 <주>가 ‘시대 말씀’을 주면서 각자에게 만나는 대로 말씀해 주었어도 귀하게 여기지 았다가,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기도 했다.
17. 하나님이 <주>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안 하면, ‘전능자의 말씀을 불신한 격’이 되어 심판을 면할 수 없다.
18. 절대 <생활 속>에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‘해’를 안 받게 된다.
19. 어떤 자는 방에 <촛불 몇 개>를 켜 놓았다가 설 명절에 고향에 가기 전에 촛불을 불어서 끄고 나갔는데, ‘넘어졌던 불꽃’이 다시 일어나서 방을 다 태우고, 온 집안의 물건들도 다 태웠다.

금산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해서 불을 꺾어도, 이미 잣더미가 되고 만 후였다.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 지키지 못함으로 귀한 것들이 다 타고 잣더미가 됐다.

20. <신앙생활>을 할 때도 ‘사탄과 인(人)사탄의 불’을 완전히 꺼야 된다. 그래야 ‘재발’하지 않는다.
21. <자기 불의의 생각도 마음>도 완전히 없애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‘재발’하지 않는다.
22. <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>을 통하여 이때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’도 조심하고, ‘신앙도 스스로 조심하고 무장하는 기회’로 삼아야 된다.